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13년 2월 20일 (수)
- 장 소 :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
- 주 최 : 좋은교사운동

목 차

■ 머 리 말	4
■ 발 제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정병오)	
1. 들어가는 말	5
2.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	9
3. 외국 사례	15
1)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2)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3) 핀란드 학점제 및 평생교육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	
4.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쟁점들	21
1)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이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이 아닌가?	
2)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3)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5.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24
1)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시범 실시	
2)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 시범 실시	
3) 진로 탐색 휴학제 실시	
6. 대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합의 지점	28
1) 자유학기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2) 국가의 재정 지원,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3) 학력 인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4)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7. 나가는 말	30

■ 토 론

1.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	-----	32
2. 손동빈 (전교조 참실정책국장)	-----	45
3.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	49
4. 최상덕(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	-----	55
5.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	58

■ 머리말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역대 정부에서 인수위 단계에서 새 정부가 실천할 중요 정책을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온종일 돌봄 교실’ ‘자유학기제’ ‘반값등록금’ ‘학교체육 활성화’라는 다섯 가지 핵심 교육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몇 가지 공약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벌써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약은 어떻게 실천할지 아무런 실행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 중 학교 현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 교실’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에 대해서는 좋은교사운동이 2012년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스마트 교육 체제와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속 토론회가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3. 2. 20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1. 들어가는 말

- 자유학기제 논의, 시작과 진행 과정

잘 알다시피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공약으로 처음 우리 교육계에 등장을 했다.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21일 발표한 5대 교육공약 가운데 자유학기제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교육공약 개발의 책임자로 알려진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이와 비슷한 ‘중1 시험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2년 11월 12일 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중1은 초등교육을 끝내고 교과 위주의 중고교 학습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때 학생들이 성적 경쟁을 시작하는 대신 진로 계획을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 1학년을 아이들이 철들게 하는 '진로탐색 학년'으로 만들어 특기, 적성, 직업 체험을 하는 활동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대신 학생의 꿈과 끼에 관한 내용으로 채울 계획이다."고 했다.¹⁾

1) 동아일보, 2012년 11월 13일 기사

이와 같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당선자의 ‘자유학기제’ 공약의 원래 의도는 중학교 1학년 전체 혹은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과 교육과정도 전혀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자아와 진로를 찾는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 활동 내용을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박근혜 당선자의 ‘자유학기제’ 공약은 여러 통로에서 반발에 부딪히면서 후퇴하기 시작한다. 한국교총에서 학력저하론을 이유로 중1 시험 폐지 공약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감은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로 대폭 물러섰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기간에 내세운 공약인 '중1 시험 폐지'를 객관식 시험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으로 완화해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교육감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정을 바꿀 생각은 없다"며 "중 1때 시험은 있지만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중1 시험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중1 시기에 쌓은 기초 학력이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육감은 "공약의 정확한 타이틀은 '중1 시험 폐지'가 아니라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라며 "중1 때 객관식 시험을 완화해 학생들이 진로와 인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회장도 "그러면 중1 시험 폐지는 없어진 것으로 알겠다"라며 "시험은 존재하되 중1을 학생들의 진로탐색기간으로 한다면 저희도 적극 밀겠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중1 시험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²⁾

이러한 문용린 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공약의 후퇴는 서울시 교육청의

2) 연합뉴스, 2012년 12월 27일 기사

2013 주요 업무 보고에 그대로 반영된다. 2013년 2월 6일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3 주요 업무 보고>에는 중1 시험 폐지 내용 대신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라는 이름으로 중간고사만 없애고 진로 교육을 조금 더 충실히 하는 학교를 11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원래 자유학기제나 중1 시험을 폐지하겠다고 할 때의 문제의식이 약간의 무늬만 남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1]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이 정착되도록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를 운영한다.

- 중1 진로탐색 연구학교 11교를 지정·운영하여
 - 연구학교는 시범적으로 중1 중간고사(지필평가)는 시행하지 않고, 학기 중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지필평가)를 합산하여 학기말 성적을 산출한다.
 - 일반 중학교에서는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고사 지필평가의 비율을 낮추고,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및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 국어, 수학, 영어 등 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교과에 충실하면서 교육과정 자율 운영을 통하여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을 적극 권장하고 진로 관련 과목의 신설을 지원하며,
- ‘진로와 직업’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3일 집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아울러 교과통합 진로교육 매뉴얼과 6개 교과(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미술 등)의 지도안을 개발·보급한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반발은 교과부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 시점에 극에 달한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과부의 보고 내용은 대략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되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지필고사의 비중을 낮추고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³⁾ 이렇게 교과부의 보고 내용이 처음 자유학기제의 의도를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진로 교육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정

3) 뉴스1, 2013년 1월 14일 기사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서 사설로 반대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조선, 중앙, 문화일보 사설이 ‘자유학기제’에 반대하는 논리는 우리나라는 중학생 시기부터 입시 경쟁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1 단계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축소하고 학습부담을 완화시켜주면 곧바로 사교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중학생들의 자유로운 진로 체험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중3 입시 이후에 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⁴⁾ 중3 입시가 끝나고 겨울방학을 하기 전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 집중적인 진로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에서 입시 이후 아이들을 교육에 집중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총의 이 입장은 입시 위주의 현 중학교 교육과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으니 진로 적성교육은 중3 입시 후 남는 시간에 하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이뿐 아니라 교총은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 진로지도 담당 교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부실 교육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하는 등 자유학기제의 부작용을 계속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교총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도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무너진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하는 정도로 후퇴를 한 상황이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도입을 이야기할 때 가졌던 문제점에 기반한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박근혜 당선자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제대로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을 필요로 했던 우리 교육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자유학기제의 대안에 대해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 토

4) 연합뉴스, 2013년 1월 24일 기사

론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를 되살리는 불쏘시개가 되길 기대해 본다.

2.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래 이 안을 처음 제안했던 문용린 교육감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은 2012년 11월 29일 좋은교사운동을 포함한 6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주최한 후보 공약 검증 토론회에서 ‘중1 시험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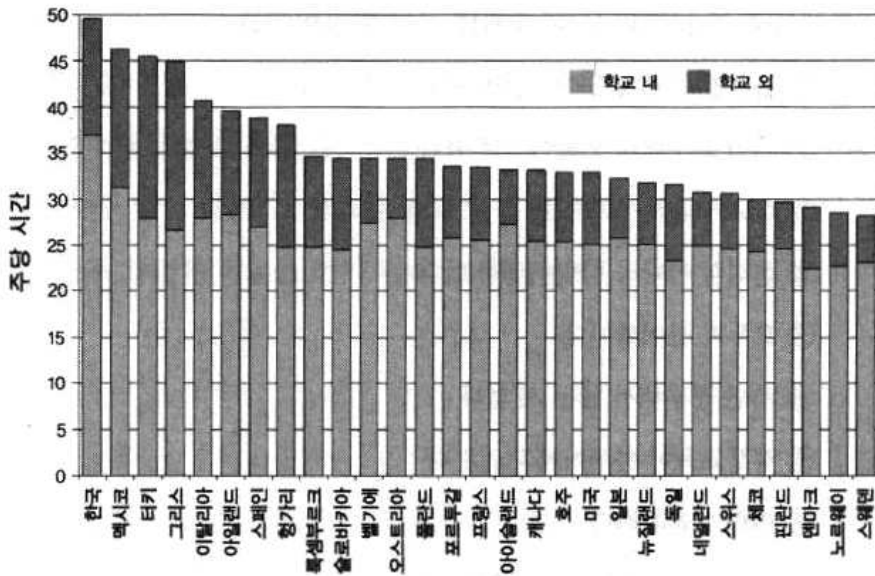
중1때 헛터가 필요하다. 방향감이 필요하다. 유치원부터 영어해라 뭐해라 하니까 12년간을 급행열차처럼 달린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도 계기도 없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택 등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중1 때 해보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진로적성교육, 가능한 것이다. 전 다중지능 교육, 사람 속에 자질 적성교육을 잘 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기초교육이어야 하고, 초중고교인 학교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 좋은 짝이 되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다중지능이나 진로계획 교육이 가능한데, 우리는 국영수에만 집중했다.

국가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유와 체험 기회를 주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게 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 아이들이 초중고 12년 동안 급행열차처럼 달리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급행열차’라는 표현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우선 우리 나라 아이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간 공부를 한다.

〈표2〉 나라별 15세 학생 주당 공부시간



출처: OECD(2004), *Learning for tomorrow's world*: p.242

이렇게 학교와 학원으로 오가며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각각의 공부의 의미가 있다면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와 학원의 공부 둘 다 명문대 입학에 위한 한 줄 서기 경쟁에서 좀 더 앞서기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반복 암기 학습이라는데 있다. 학교든 학원이든 입시 시험에서 좀 더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 교육적으로는 정말 질이 낮은 교육, 엄청난 투입에 비해 교육적 효과가 낮은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일정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야 하는 경쟁체제에 있다. 즉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혹 중간에 약간이라도 실수나 방향을 할 경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쫓기는 상황인가?

이러다 보니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온전할 수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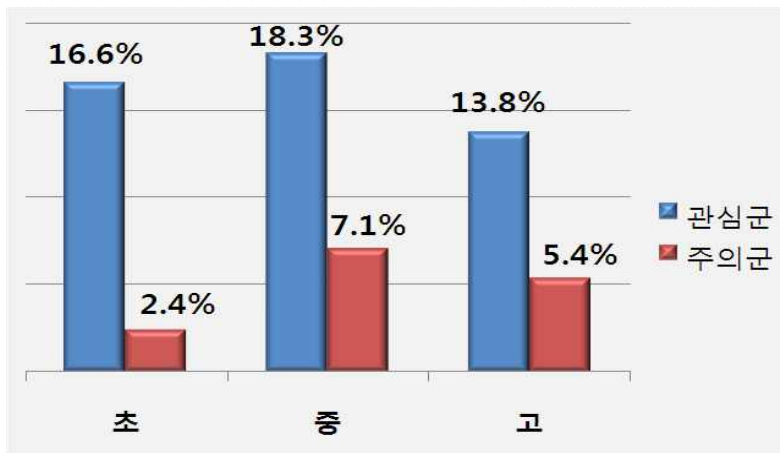
가 지난해 전체 초·중·고생 668만2천320명 중 97.0%(648만2천474명)를 대상으로 벌인 2012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초중고생의 16.3%인 105만4천여 명이 정서·행동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관심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심층상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주의군'도 4.5%인 22만3천 여 명에 달했고, 자살생각 등을 해본 고위험군 비율은 1.5%인 9만7천 여 명이었다. 특히 중학생은 18%가 '관심군', 7%가 '주의군'으로 초등학생이나 고교생보다 관심군과 주의군 비율이 높았다.

'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검사 실시 학생수(명)	관심군		주의군	
		학생수(명)	비율(%)	학생수(명)	비율(%)
초	2,813,483	466,560	16.6	50,898	2.4
중	1,812,841	332,008	18.3	96,077	7.1
고	1,856,150	255,879	13.8	77,014	5.4
합계	6,482,474	1,054,447	16.3	223,989	4.5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3

학교급별 관심군 및 주의군 비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3 학생정신건강 주요사업 추진계획 발표, 2013

모든 아이들을 12년간 입시경쟁이라는 ‘급행열차’에 몰아넣고 다른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명문대학을 향해 내모는 교육체제가 이렇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머물고 돌아보는 작업은 국가 교육정책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이들 개개인 차원에서도 주어려야 한다. 아이들이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여유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이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을 파악해 비전과 희망과 목표를 설정해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게 습관이 돼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질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노력에 의해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을 수능시험 성적이 나올 때까지 보류합니다. 저는 이것을 집행유예 또는 모라토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꿈의 설정을 유예하면 목표의식 없이 오로지 수능 성적을 위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이 다른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강요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시스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들여다볼 기회를 주지 않고 선생님과 학부모들 역시 그것을 들여다볼 생각도 않고 오직 성적만 봅니다.⁵⁾

실제로 우리 나라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 깊이 살피고, 또 직업 세계와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직업능력평가원이 고1 학부모 1,432명, 학생 총 24,126명(초 6학년 3,551명, 중 2학년 10,486명, 고 1학년 10,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학생의 64.6%만이 희망직업이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35.4%는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별히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희망직업이 있다는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문화일보, 2013년 2월 7일 기사

〈희망직업 유무〉

(단위 : 명, %)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총합
초등학교	2,839 (80.0)	166 (4.7)	545 (15.4)	3,550 (100.0)
중학교	6,258 (59.7)	1,047 (10.0)	3,178 (30.3)	10,483 (100.0)
고등학교	6,486 (64.3)	791 (7.8)	2,814 (27.9)	10,091 (100.0)
계	15,583 (64.6)	2,004 (8.3)	6,537 (27.1)	24,124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진로교육 지수조사 결과, 2012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희망직업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색의 결과가 아닌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과 부모가 기대하는 직업의 일치도가 49.5%에 달한다.

〈학교급별 학생 10대 희망직업〉

순위	초등학생 희망직업		중학생 희망직업		고등학생 희망직업	
	직업	빈도	직업	빈도	직업	빈도
1	운동선수	(10.7%)	선생님(교사)	(12.5%)	선생님(교사)	(9.3%)
2	선생님(교사)	(10.4%)	의사	(7.1%)	회사원	(7.6%)
3	의사	(9.2%)	연예인	(6.9%)	공무원	(4.7%)
4	연예인	(8.2%)	요리사	(4.8%)	연예인	(4.3%)
5	교수	(6%)	교수	(4%)	간호사	(4.2%)
6	요리사	(5.1%)	경찰	(3.8%)	공학관련엔지니어	(4.1%)
7	법조인	(4.5%)	운동선수	(3.7%)	의사	(4%)
8	경찰	(3.6%)	공무원	(3.1%)	요리사	(3%)
9	패션디자이너	(2.5%)	법조인	(2.5%)	경찰	(2.8%)
10	제빵사	(2%)	회사원	(2.5%)	컴퓨터관련전문가	(2.6%)
	계	(62.2%)	계	(50.9%)	계	(46.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진로교육 지수조사 결과, 2012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직업〉

(단위 : 명, %)

순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의사	630 (17.8)	선생님(교사)	1506 (14.4)	공무원	1631 (16.2)
2	선생님(교사)	426 (12)	의사	1378 (13.2)	선생님(교사)	1111 (11)
3	법률가 (법조인)	326 (9.2)	공무원	1175 (11.3)	회사원	727 (7.2)
4	공무원	256 (7.2)	법률가 (법조인)	567 (5.4)	의사	710 (7.1)
5	교수	144 (4.1)	경찰	320 (3.1)	간호사	448 (4.5)
6	운동선수	136 (3.8)	교수	264 (2.5)	법률가 (법조인)	255 (2.5)
7	경찰	132 (3.7)	약사	242 (2.3)	공학관련 엔지니어	228 (2.3)
8	요리사 및 음식관련분야	83 (2.3)	간호사	220 (2.1)	경찰	222 (2.2)
9	외교관	80 (2.3)	회사원	215 (2.1)	군인	189 (1.9)
10	아나운서	64 (1.8)	요리사및음식 관련분야	185 (1.8)	약사	183 (1.8)
		2,277 (64.2)		6,072 (58.2)		5,704 (56.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진로교육 지수조사 결과, 2012

〈자녀의 희망직업과 부모의 희망직업 일치도〉

(단위 : 명, %)

		남자	여자	총합
초등학교	일치	582 (45.0)	548 (44.5)	1,130 (44.8)
	불일치	711 (55.0)	684 (55.5)	1,395 (55.2)
	총합	1,293 (100.0)	1,232 (100.0)	2,525 (100.0)
중학교	일치	1,150 (45.6)	1,200 (44.8)	2,350 (45.2)
	불일치	1,371 (54.4)	1,478 (55.2)	2,849 (54.8)
	총합	2,521 (100.0)	2,678 (100.0)	5,199 (100.0)
고등학교	일치	1,371 (49.9)	1,320 (51.5)	2,691 (50.7)
	불일치	1,377 (50.1)	1,242 (48.5)	2,619 (49.3)

	총합	2,748 (100.0)	2,562 (100.0)	5,310 (100.0)
계	일치	3,103 (47.3)	3,068 (47.4)	6,171 (47.3)
	불일치	3,459 (52.7)	3,404 (52.6)	6,863 (52.7)
	총합	6,562 (100.0)	6,472 (100.0)	13,034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진로교육 지수조사 결과, 2012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거나 직업을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가진 진로 희망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향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해 2014년까지 전국 5,383개의 중고등학교에 1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연2회 이상 온오프라인 적성검사를 받게 했으며, 선택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서 가르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과 학교 차원에서 진로체험 관련 행사들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로교육들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과도한 입시경쟁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운데 또 하나 덧입혀진 프로그램이다 보니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선 쉴 새 없이 달려가야 하는 경쟁체제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하다.

3. 외국 사례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유학기제’의 직접적인 모델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환학년제의 내용과 한국 교육에의 적용 모델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직업정보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외에도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델도 중고등학생

들이 자신들의 자아를 찾고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며 미래를 탐색하는 과정으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별도의 제도로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학점제와 평생교육과 연계한 직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욕구를 흡수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1) 아일랜드 전환학년제⁶⁾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교육열과 대학진학율이 제일 높은 나라로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다는 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많은 나라다. 그렇지만 아일랜드도 성적경쟁, 주지교육 중심으로 학습체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교육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환학년제다. 전환학년제는 한국의 고1에 해당하는 중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1년간 시험이나 공부에 대한 부담없이 자유롭게 세상과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는 생각에서 1974년에 도입이 되었다. 이전까지 아일랜드의 중등교육은 우리의 초등학교를 마친 후 5년제 과정이었지만 전환학년제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6년제(중학교 3년, 전환학년 1년, 고등학교 2년)로 바뀌게 된 셈이다. 도입 첫해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겨우 3개교에 불과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도 겨우 20개 학교만 참여할 정도로 확산은 더뎠다. 1994년 이후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작되면서 전환학년제 참여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0년 현재 75% 이상의 학교가 전환학년제를 제공하고 있고, 전체 학생 중 53%가 전환학년제에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⁷⁾

6) 이 내용은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서경하 박사가 아일랜드 교육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인 <http://blog.naver.com/eduireland> 에 실린 내용과 경향신문 송현숙 기자가 2012년 7월 30일에 실은 취재 기사를 종합한 것입니다.

7) 김나라 외(2012), 『2012년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2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참여 현황〉

연도	전환학년제 제공 학교 수(개교)	전환학년제 참여 학생 수(명)	전년도 졸업시험 시험자의 전환학년제 심시 비율(%)
1993-1994	163	8,499	13.0
1994-1995	450	21,085	31.3
2000-2001	498	23,727	36.7
2003-2004	526	23,299	38.7
2006-2007	524	27,090	46.7
2009-2010	555	28,657	53.0

자료 : 김나라 외(2012), 『2012년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3

전환학년의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계열(layer)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필수과목 계열(core subjects layer)이다. 즉, 5, 6학년 단계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졸업시험 과목인 영어, 수학, 외국어 등 핵심과목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둘째는 선택과목 탐색 계열(subject sampling layer)이다. 이 역시 5, 6학년에 개설된 선택과목 가운데서 학교 혹은 개인의 관심을 따라 선택적으로 공부를 한다. 셋째는 자유 관심 계열(transition year specific layer)이다. 학교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의 관심을 따른 과목이 개설된다. 여기에는 심리학, 건축학과 같은 학문적인 과목부터 해서 갈등연구, 영화 연구, 미디어, 리더십 같은 사회성이 강한 과목, 창업, 주식, 요리, 웹디자인, 작곡, 연기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넷째는 체험 및 활동 계열(transition year calendar layer)이다. 여기에는 초청강연, 패션쇼, 직업 체험, 봉사활동, 외국 여행,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첫째,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 둘째, 교육과정 선택 및 운영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 프로그램 개설 및 평가에 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학교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 셋째, 학교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운영자가 있고,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넷째, 외부 단체 및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평가는 대체로 포트폴리오 형태로 개개인이 했던 것을 보고하는 형태다. 성적으로 환산하지도 않는다.

2)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덴마크는 1814년에 ‘일반교육법’을 통해 학령기 아동(7-14세) 전체를 대상으로 7년간 의무교육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세계 최초의 공교육 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덴마크 공교육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일반적 의미의 공교육 외에도 학부모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학교를 공교육에 포함시킨 이유는 자유학교에 대해 국가가 교사의 급여를 포함 전체 학교운영비의 75%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해야 할 25%의 학비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자유학교 출신들도 공립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공교육 재학 학생들도 자유학교의 한 형태인 애프터스쿨이나 시민대학 등을 거쳤다가 다시 공교육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만의 독특한 교육제도의 하나인 애프터스쿨은 자유학교의 일종인데, 공립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다. 그러니까 덴마크 학생들은 공립기초학교나 자유학교에서 9년 과정을 이수한 후 곧바로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할 수도 있고, 공립기초학교에 남아 10학년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애프터스쿨에서 1년 과정의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애프터스쿨은 같은 나이의 덴마크 학생들의 30% 정도가 다니는데, 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아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기를 원하거나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 교육과정은 주로 음악, 미술, 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8학년이나 9학년 과정을 함께 개설하기 때문에 8, 9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애프터스쿨은 기본적으로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음미체 중심의 감성교육과 단체활동이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이 된다. 애프터스쿨 재학생들의 하루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건물을 둘러본 후 식당으로 돌아와서 4명의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학생들에게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애프터스쿨을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대부분이 친구들을 좀 더 깊게 사귀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발견하고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했다. 일반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수 있지만 학교 수업이 마치면 집으로 가는 반면, 여기서는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기 때문에 훨씬 깊은 만남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루의 일과는 7시 전에 일어나 7시가 되면 산책을 한다고 했다. 산책은 비가 와도 반드시 한다고 했다. 7시 15분에 아침식사를 하고, 8시에는 소강당에 모여 노래 2곡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고 했다. 기도는 학교를 축복하거나 기도제목이 있는 아이를 위해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다 참여한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전체의 전달사항을 듣고 학생 가운데 특별한 경험이나 나눔이 있는 학생들이 나눈다고 했다. 8시 30분부터 1시간 공부하고 그 후 스낵 타임을 가지고 다시 수업을 한 후 12시에 점심을 먹는다고 했다. 이 때 식사 당번들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음식 준비와 테이블 준비를 한다고 했다. 식사 메뉴에 대해서는 학생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필요한 광고를 하는데 아이들도 자유롭게 광고를 한다고 했다.

오후 1시부터 3시 혹은 3시 30분까지 오후 수업을 하고 3시 반 이후 교사와 학생이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한다고 했다. 그리고 45분 동안 조용히 방에 들어가 독서를 하는 등 조용한 시간을 보낸 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선생님은 6시 이후 퇴근하지만, 2분 선생님은 남아서 사감 역할을 한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 시간인데 클럽 활동도 하고 개인시간도 보낸다고 했다. 10시 30분에 인원 점검을 하고 학교 전체의 인터넷이 꺼지면서 잠자는 시간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바로 잠들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 서로 존중하는 것,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법, 친구를 사귀는 법, 각자 기쁘게 살아가지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등을 배우고 있다고 답을 했다.

학생들의 향후 진로를 물으니 한 명은 상업계 고등학교 진학하고 싶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의 학생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후 영화, 음악, 영어 등 자신의 관심 분야의 대학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⁸⁾

3) 핀란드 학점제 및 평생교육과 연계된 직업교육체제

핀란드 교육체제는 예비학교 단계(Pre-school), 기본 의무교육 과정인 9년제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단계,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Upper Secondary School과 Vocational school 단계, 그리고 대학교육 과정인 University와 Polytechnics 단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인 종합학교 단계까지 9학년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인문고등학교와 직업학교로 나뉘어진다. 인문고등학교는 그 목적 자체가 대학 준비 학교로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배우는 과정이다. 핀란드의 인문고등학교는 대학 시스템과 비슷하게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2년 만에도 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2년 만에 졸업하는 학생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3년 내지 3.5년 정도 걸려서 졸업을 하며, 일부 학생들은 4년 정도가 소요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혹은 진로를 탐색기 위해 한 학기 혹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기도 한다.

직업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과 평생교육이 결합된 개방된 형태를 갖고 있다. 일단 규모 면에서 핀란드의 직업학교는 한 학교에 전공이 20개가 넘는 대학 이상의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17세에서 19세에 이르는 고등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 못지않게 20대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이상의 재취업 훈련생들도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의 직업학교들이 이렇게 매우 다양한 직업 훈련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직업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을 했지만 그 영역이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업 영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방향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잡고 직업 영역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 직업학교가 그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도 청소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17세에서 19세까지 고등학교 재학 나이의 청소년 가운데 직업학교의 중퇴율은 전체 학생 대비 30%에 이른다.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점제 체제 하

8) 정병오(2011), 『북유럽 교육을 보며 한국교육의 미래를 그린다』, 좋은교사운동

에서 학점이수 기한을 조정하거나 휴학을 통해 해소를 하고, 직업학교의 경우 자퇴 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체제를 통해 부작용을 흡수하고 있다.

4.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쟁점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에 짓눌려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개선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자유학기제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그 적정 시기가 언제인지, 또 자유학기제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자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1)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이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 청소년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청소년 시기에 맞는 건강한 자아 확립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시경쟁을 완화시켜주고, 교육과정의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이 그 핵심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여러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은 꼭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입시경쟁의 완화는 현행 대학서열 체제는 물론이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 시장의 문제, 임금 격

차, 사회 복지와 안전망 구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유럽 여러 국가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교육의 다양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온 힘을 합해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축소와 난이도 조정의 경우도 현재의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선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혹 입시 경쟁 체제와는 별도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교과와 학문 이기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 문제가 본질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 문제는 이 문제대로 노력을 하되, 이와는 별도로 아이들에게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입시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과 세상을 탐색하고 생각할 여유를 주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입시 경쟁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입시 경쟁 체제 가운데서도 상처를 덜 받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유학기제는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와 교육과정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대안 학교와 홈스쿨 그리고 학교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볼 때 자유학기제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한 국민적인 갈망과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 다만 이 제도가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만 해 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 하에서도 돌파구나 숨통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자유학기제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문용린 교육감은 중1을 제시했다. 왜

중1이 자유학기제 시행의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중1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가 진로선택과 탐색의 가장 적절한 나이인가 라는 고민과 연구의 결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다만 현 제도 하에서 중1학년의 학교 시험 결과가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행복한 중2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웠던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여졌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중2 시기를 선택한 것은 중2 시기가 사춘기를 제일 극심하게 겪는 시기라는 것과 고입에 영향을 덜 받는 시기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성장 단계와 진로에 대한 고민과 모색의 단계의 차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 시행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물론 일반적인 진로교육은 초중고 전 시기에 각 학령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아와 진로 탐색을 위해 한 학기 혹은 1년 정도 정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 시기는 중3이나 고1이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다수의 교사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실제로 자유학기제 혹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모든 아이들의 발달 단계나 고민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 시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유학기제를 제도화한다고 할 때 기준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3)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박근혜 당선자 측(문용린 교육감)과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자유학기제’ ‘중1 시험 폐지’ ‘행복한 중2 프로젝트’와 같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한계에 부딪혀 계획을 축소하거나 구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고입 체제와 충돌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충돌하고, ‘학력저하’라는 보수적인 여론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구호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와 같은 무늬만 자유학년제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 해 말(2012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김나라 외 5인이 연구한 『2012년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적용 방안 연구』도 한국형 적용 모델로 ‘중2 진로체험 학년제’와 ‘중3 2학기 진로 탐색 자유학기제’, ‘고1 진로체험 학년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2009 개정교육과정이 허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허용 폭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방학을 활용한 직업 체험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의 핵심인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틀만 제시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에게 맡기는”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입시 체계의 틀 내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로교육을 강화할 경우 물론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된 진로교육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교육의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학교와 교사의 상황,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입시 경쟁 체제의 벽을 결코 넘을 수가 없다.

자유학기제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 제대로 시행하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시를 하며, 덴마크의 애프터스쿨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을 한다. 핀란드의 경우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휴학을 하거나 자퇴 후 복학을 한다. 국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에 뜻을 가진 학교나 학부모,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된다.

5.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

1)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시범 실시

전환학년제 고등학교는 1학년은 전환학년으로 운영을 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국 시도별로 한두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희망하는 교육청에 한하여 몇 학교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원을 받되 추첨을 통해 입학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국가에서는 이러한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뜻을 가진 교장과 교사의 자원을 받아 한 학년에 해당되는 교사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을 하면 된다. 전환학년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가게 하면 될 것이다.

전환학년제 고등학교의 확대 여부는 시범 실시에 대한 만족도, 교육적 효과,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고 교육적 성과가 높아 이러한 학교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한 학년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전환학년을 현재의 학제 틀 내에서 소화할 것인지 하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환학년제 고등학교의 장점은 공교육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 면에서 볼 때 고1에서의 진로탐색 과정과 결과가 자연스럽게 고2에서 4학년까지 공부하고 진학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학교 입장에서는 고2에서 4학년까지 이어지는 일반 교육과정 내에서도 고1의 진로탐색 과정의 결과들을 담아내는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교육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교육본질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한 학년을 쉬어가면서도 친구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물론 전환학년제 중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3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후 희망자들만 남아서 중4 전환학년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된다. 이 경우는 이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친구들과 함께 전환학년을 한다는 면에서 안정성은 있지만, 일반 친구들에 비해 고등학교 진학이 한 학년 늦어진다는 면에서 약간의 부담을 져야 한다.

2)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 시범 실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는 중3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 진로 탐색을 하도록 도와주는 1년 과정의 대안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공립형이라는 것은 국가가 재정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는 의미지 국가나 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질은 심사와 감독을 받고 운영하는 형태로 가야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 헌신된 교사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의 장점은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동시에 공교육의 틀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육본질에 맞는 자유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교육적 상상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실험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 혹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이고 영화학교, 창업학교, 방송학교, 자연학교, 아토피 치유학교, 봉사학교, 여행학교 등 다양한 틀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주체도 우리 사회의 각종 직능별 단체들, 종교단체, 사회 단체들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가진 자산을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는 ‘과건 학년제’ 형태로 시행해볼 수도 있다. 즉, 중3 졸업 후의 시기가 아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 중 언제라도 공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건 학년제’ 형태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공부를 한 후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신이 이전까지 공부를 했던 이전 학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상급 학년으로 진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는 본인의 희망과 진로 탐색 대안학교 담당교사의 의견, 해당 학년 학업에 대한 검증 시험을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즉,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진학 학생 가운데 대학 진

학을 원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청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되, 학적은 원래 재학중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두고 졸업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원용하면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도 중3과 고1 시기에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외에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 파견 학년제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진로 탐색 휴학제 실시

진로 탐색 휴학제는 중고등학교 과정 중 언제든지 진로 탐색을 위해 휴학을 허용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휴학 후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한 지원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예를 들어 1주일에 하루 정도) 교육청에 있는 가칭 ‘진로 탐색 휴학 학생 지원 센터’(이후 진로 지원 센터)에서 진로지도 교사에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휴학 기간이 끝나면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로 탐색 휴학제는 악용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많은 제도다. 자칫 상류층을 중심으로 휴학 후 고급 어학 연수 붐이 불 수도 있고, 또 휴학 후 주요 교과에 대한 사교육에 매달릴 경우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휴학 후 게임에만 몰입하는 등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휴학 기준을 잘 세우고, 휴학 신청서에 대한 엄밀한 심사와 더불어 ‘진로 지원 센터’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 취지에 맞는 사례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초기 정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진로 탐색 휴학제의 경우에도 1년간의 휴학 기간을 마친 후 이전까지 공부를 했던 이전 학년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상급 학년으로 진할 것인지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경우도 파견학년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과 ‘진로 지원 센터’ 진로지도 교사의 의견, 해당 학년 학업에 대한 검증 시험을 거쳐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6. 대안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합의 지점

1) 자유학기제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업 체험이나 탐색의 내용은 거의 없다. 대신 음,미,체를 중심으로 한 예능 활동, 단체 활동을 통해 감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한다. 구체적인 직업 탐색보다는 감성, 사회성을 키우고 자신을 성찰할 여유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진로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매트스쿨의 경우는 구체적인 직업 영역에 들어가 그 일에 몰입함을 통해 그 일을 위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 개발 동기를 일깨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하자센터’ 같은 경우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상급 학년 준비를 위한 기초 공부, 다양한 관심 영역에 대한 개척 및 체험,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개인적 상황에 맞추어 강조점을 달리한다. 물론 다양한 강조점을 가진 학교 혹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자유학기제를 공교육 체제 내에서 운영한다고 할 때 기본 시스템 마련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전환학년제 고등학교든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교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진로탐색 휴학제도 ‘진로 지원 센터’ 상담 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학교 건물도 필요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 아주 작은 인원이 지원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는 않겠지만 제도가 정착이 되어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자유학기제의 혜택을

전체 학생이 골고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만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원 자격이 모두에게 열려있기는 하지만 재정 혜택이 일부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자유학기제의 내용 특성상 체험학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여기에는 많은 경비를 소요하는 활동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할 경우 소수의 인원에게 국가 재정이 집중되는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 경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 운영 경비의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필요할 것이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3) 학력 인정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유학기제 이수 기한의 학력 인정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장 깔끔한 것은 어떤 형태든 자유학기제 기간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다른 친구들보다 한 학년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고라도 자유학기제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만 이 제도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과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직업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학교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원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와 진로 탐색 휴학제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 기본적인 학력 검증, 담당 교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해당 학년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자유학기제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안학교와 홈스쿨에 대한 학력 인정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 인정 제도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이 자유로운 직업 체험과 사회 체험을 도울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은 자유학기제 성공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제도적이건 의식적이건 이러한 인프라가 거의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 제도는 수십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아주 소수의 학생들만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이나 학교의 의지로서 부족한 사회적 인프라의 빈틈을 뚫고 의미있는 직업 체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인프라 구축과 의식 변화를 조금씩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일반화된다고 할 때 이러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직업 체험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줌을 통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7. 나가는 말

-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박근혜 당선인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다.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약속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공약이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자의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한 것에서 보여지듯, 야당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공약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하듯, 현재의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고, 학교나 교사의 준비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인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입시 경쟁 개선 후 해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 사회적 인프라의 준비를 갖춘 후에 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회

망자 중심으로 조금씩 하면 된다. 정말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은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고 준비가 된 아이들부터 하면 된다. 소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되 대신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을 해야 한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에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도 도입의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제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자유학기제는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2013년에는 제도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시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도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조금씩 실험을 하고 확대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까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제도로 살아남을 수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박근혜 정부의 실천 의지를 기대한다.

토론1

김무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

자유학기제의 성공 조건과 대안

1. '자유학기제' 정책의 공약 강조점과 유의점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학교교육은 입시에 예속되어 있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
 - 자유학기제에는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진행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중 221페이지 발췌

- 자유학기제 공약 강조점은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음.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 폐지 그리고 시험위주의 강의식 교육대신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진행함에 있음.
- 그러나 현재 자유학기제를 두고,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최소화하여 진로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는 제도로써, 평가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는데 가중치를 두는 견해와

▷진로탐색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 직업체험 여건과 환경의 전제에 국한한 나머지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대한 보다 넓은 교육적인 의미 부여와 대안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 그리고 ▷토론·토의수업이나 체험활동 등은 자유학기제와 상관없이 모든 학년, 모든 교육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자유학기제에 한하여 또는 동 기간에 특히 강조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를 두고 교육학자, 전문가, 현장 교원들 사이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음.

- 필자는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유학기제’로 명명한 것과 공약집 외에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발표된 바가 없는 제약에 따른 일시적인 이견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평가 폐지냐, 유지냐’ 등이 오히려 이슈로 부각되면서 본말이 전도되어 자유학기제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봄.
- 한 학기라도 할애해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강조하고, 성적 위주가 아닌 ‘진로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을 학력위주에서 인성과 진로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이를 위해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박근혜 정부 내 안착이라는 조급함임. 이와 같은 업적위주의 정책 시나리오만 유의한다면 <자유학기제 = 새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봄.
- 또한 교육부문에 있어 정책 과제의 취지에만 경도된 채, 무리한 추진 또는 실험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임. 이러한 정책 발상은 그동안 술한 시행착오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와 직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됨.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세밀한 방안이 미비할 경우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와 교원·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우선하여야 할 것임.

II. 한국교총 입장 및 현장교원 종합 의견(쟁점 중심으로)

◆ 한국교총 입장

□ 도입 시기 및 학년, 프로그램의 철저한 검증 및 단계적 대안 접근

□ 자유학기제의 성공 조건(일부 필자 의견 포함)

□ 교육주체간의 합의 조건 마련

- ① 도입 시기에 대한 효과 등 교육적 논거 제시 및 공감
- ② 해당 기간 동안의 학생평가 방식 및 새로운 평가제도 개발
- ③ 중-고교 학생 선발 전형의 고입제도 부분 개선(탄력성 확보)
- ④ 운영 방식(희망학생 선택형 or 전체학생 의무형)
- ⑤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인프라 구축(농산어촌 지역의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 등)
- ⑥ 진로지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수업시수 감축
- ⑦ 교과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한 방향의 융합형 교육과정 마련(핵심역량&인성 중심)

➡ 시범 운영 후 교육주체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

□ 정책 성공을 위한 정책 지원 과제

- ①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본질적 개혁
- ② 진로교육 시간 의무시수 제정 등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반영
- ③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학생 교육의무화 관련 법 마련 등 제도화
- ④ 국가직무능력표준화를 통한 능력중시 취업 시스템 구축

□ 자유학기제 성공 조건 탐색(문제점과 해결 방안)

1. 도입 시기에 대한 효과 등 교육적 논거 부족

- 도입 시기에 대하여 어느 시기에 진로탐색을 집중적으로 하면 학생의 발달단계와 연동하여 더욱 의미가 있는지 살피는 등의 교육적 차원의 논의 부족
- 제도의 효율성이나 안심성을 주로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는 실정임. 즉, 중학교에 갓 올라온 학생들의 충격을 줄여주면서, 빠른 시

기에 목표를 갖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상대적으로는 고입시의 부담이 덜한 시기를 찾아보니 중 1학년 1학기가 논의된 것으로 사료됨. 아마도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일부 기술 등의 분야는 빠른 진로 설정과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 학습 기회가 주어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자유학기제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학업이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 이 점을 감안할 때도 중 1이 적절한지 의문임. 또한 현장 교사들의 중론과 같이 중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시기로서 진로탐색의 집중 기간이 중 1학년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상당함.

2. 해당 기간 동안의 학생평가 방식 및 새로운 평가 제도 개발

-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방식도 변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2.6)에 따르면, 중 1 진로탐색 연구학교 11개교를 지정·운영하되, 연구학교는 시범적으로 중1 중간고사(지필평가)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 대신 학기 중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지필평가)를 합산하여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안으로 제시한 수행평가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체감 차이가 있고, 게다가 수행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부담 효과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평가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
- 입시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시험이 완화된다고 하여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학생의 정확한 수준 판별의 어려움 및 해당 시기의 교육내용 습득에 대한 불안감 양산으로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 가능성이 다분히 예상됨.
- 따라서 학교 현장 교원들이 우려하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의견을 반영하되, 동 기간 학생의 학습 수준이나 능력을 판별하는 평가 방식 보다는 학습상의 공백을 진단하는 평가 방식으로 평가에 대한 방법과 진로체험 보고서 및 태도 등의 정량적·정성

적 평가 방법 대안 등 진로체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되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

-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 상의 ‘학생평가시 반드시 지필고사를 수행평가와 함께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과부 훈령을 개정해야 함.

3. 중-고교 학생 선발 전형의 고입제도 부분 개선(탄력성 확보)

-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참여가 고등학교 입학 시 불이익이 되는 여건에서는 자유학기제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움.
- 외국어고교,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고교의 학생 선발 전형이 바뀌지 않고서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에 진로탐색 위주인 자유학기제가 결코 탐탁치 않을 것임.
- 특히, 이들 학교는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에서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 소속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 고교의 학생 선발 전형이 바뀌어야 소기의 참여 또는 희망도 가능할 것임.
- 또한 마이스터고 등 특수 목적고의 입학전형 역시 자유학기제 동안의 학생 실습 및 체험 기회와 연동되는 전형 요소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 부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유인해야 할 것임.

4. 운영 방식(희망학생 선택형이나, 전체학생 의무형이나)

- 학교단위로 시범 또는 전격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형으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선택형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음.
- 이는 아이랜드의 경우처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쪽은 진로정체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이미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일부 공감함.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환학년제는 학제 및 교육과정과 직결되어 있고, 이원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
-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
- 자칫 자유학기제를 확대 해석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동기간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지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 기간 학원 및 해외 어학연수 등에 쏠리는 부작용 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으로만 맡길 수 있는 사안은 못됨.
 - 희망학교 단위로 실시하되, 희망학교에서는 참여 희망 학생으로 국한하는 선택형 보다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한 희망 프로그램 사전 조사와 참여율 등을 전제한 교육주체간의 합의를 통해, 학교주도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시범학교 도입 후 전격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희망 학교는 학생 입학 안내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임을 충분히 사전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동의를 확보해야 함.
 - 자유학기제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에서의 집중적인 진로탐색 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남아 있음. 필자가 제시하는 1~2단계의 진로탐색 강화 방안의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음.

5. 진로탐색 관련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인프라 구축(농산어촌 지역의 역차별 문제 해결 방안 등)

- 현장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성공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임.
- 이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적성진단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나아가 직업인과의 대화, 잡월드 체험, 비전캠프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행사 등으로 간접 체험의 기회는 확대되고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직업을 궁극적으로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함에 있음(○○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원고 중 발췌).
-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강화가 직업체험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장래에 대한 진로와 공부하는 목적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연계되기를 바라는 만큼, 실습과 체험 위주의 집중적인 진로탐색 강화 프로그램은 결국 학생들의 직접적인 직업 체험의 폭을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관건일 될 수밖에 없음.

- 국가, 기업, 지역사회, 학교가 함께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교의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는 주5일제 토요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평생교육 등의 정책들이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체제가 수립되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성공 조건의 필수 선결과제임은 분명함.
- 특히, 1972년 10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하였던 ‘자유학습의 날’과 1995년부터 실시했던 ‘책가방 없는 날’에 대한 실패의 경험 역시, 정책 시도 배경과 의욕은 비슷했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기에 성공이 아닌 실패로 종결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의 인프라 측면에서 대도시 대비 농산어촌 지역과 도서벽지의 경우는 지도 교사, 적절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기관 또는 기업, 학부모의 인식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없음. 동 정책으로 인해 대도시 대비 농산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또 하나의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음.
-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확보를 통해 각 기업의 학생 교육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진로체험 센터 설치(별금과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포함)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중기 지원 방안). 단기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 참여 기관 또는 기업과 지자체와 행정구청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문화센터 등을 진로체험 장으로 정하고,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해당기업 간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적용해 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6. 진로지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수업시수 감축

- 서울교육청의 중1 진로탐색 집중 학년제 운영 방안에서와 같이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권장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3일 집중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시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체화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함.
- 학생들의 진로체험 탐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진로적성 검사 진단, 진로 계획, 상담, 재수정과 방향 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진로상담교사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과 혹은 담임교사의 지도가 매우 중요한 바,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는 매우 중요함.
- 한편, 중학교 현장교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주일에 25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교과에 맞는 토론, 실습, 체험 학습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교육과정을 일정 기간 내 이수시켜야 하는 기본적 책무에 더하여 자유학기제로 인한 다른 방식의 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더하기 때문임. 또한 국·영·수 주지교과의 수업시수와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진로탐색과 맥락을 같이할 수 있는 실과, 기술과 가정 시간 등에 대한 수업시수를 적의 조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기회 확대가 학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음.

7. 교과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탐색이 가능한 방향의 융합형 교육과정 마련(핵심 역량 & 인성 중심)

- 전문가들 공히 진로탐색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현재의 학력 중심의 강의식·일제식 수업에서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를 교수-학습자 간 쌍방향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모형이 제시되어야 함.
- 학력중심에서 인성과 진로 중심으로의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가 있는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교과서완결학습’ 체제 구축과 연계되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가 단순히 학력 신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 비전을 탐색하는데 요구되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인성의 중요성 포함)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와 적용이 되어야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예) 미래사회의 인재에게 기대되는 핵심역량

<능력> 높은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과 종합적 능력

<가치> 소통과 협동, 상생적 가치와 배려

□ 정책성공을 위한 정책 지원 과제 탐색

1. 과도한 입시 경쟁에 짓눌리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공감의 중심에는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문제의 본질이며, 대학입시 제도 개혁이 자유학기제의 지속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 모든 교육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 즉, “의사가 되려는 아이도 서울대 입학, 건축가를 꿈꾸는 아이도 서울대 입학, 컴퓨터 전문가가 되려는 아이도 서울대 입학을 하기 위해 공부하는 현행 명문대 대학 입시 문화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스펙 갖추기를 바라는 현실에서 자유학기제가 공부하는 이유를 찾고 자기의 진로를 진정 설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학부모의 푸념과 같이 엄밀히 우리의 공교육 기반인 초·중등 교육이 대학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안은 자유학기제가 아닌 대학입시 제도 개혁에 있음.
- 하지만 대학입시 제도 변경은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만큼,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몰된 채 지나친 경쟁으로 지쳐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는 별도의 의미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함.
-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전형의 간소화의 공약으로만 머무른다면 결코 자유학기제는 오래

가지 못한 채, 예전 정부가 시도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책가방 없는 날’처럼 역사 속에 빛바랜 정책으로 장식될 수밖에 없음.

- 유·초·중등의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방향으로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본질적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도, 진로탐색 강조도, 인프라 구축도, 여타 자유학기제의 성공조건 등도 단기적 수혈 또는 응급조치로만 의미가 상쇄될 수 있기에, 자유학기제의 정책 시너지와 함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금의 대학입시제도는 개혁되어야 함.

2. 시범 도입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유학기제가 도입한다면... 성공의 열쇠는 공교육 정상화 틀에서 인프라 구축 등 법적 체계를 갖추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지원되어야 한다.

- 당선인의 공약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진로탐색 교육 시간을 명시하거나 의무 시수를 제정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아울러 재정투자, 진로체험 실습 및 체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 진로교육 인력풀 구축 및 연수와 함께 독일의 경우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제공 및 관련 연수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을 담보해야 함(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벌금제 동시 운용).

3.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과 실습의 교육과 공부 내용이 일자리와 연계되고, 참여 동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이 아닌 개인의 직무능력이 인정받는 국가 취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당선인의 공약인 국가직무능력표준화는 교육이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갖고,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의 연계강화를 위해 과정이수형자격제도 도입, ▷고교 이후 직업교육을 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일자리 중심 교육으로 전환, ▷교육(졸업장 및 학위), 자격증, 직업훈련 이수 및 직무능력 등이 상호 인정되는 통합적 국가역량체제 구축 등을 주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자유학기제 공약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진로 탐색 기간 중 실습 또는 체험의 해당 내용을 학생의 특기와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나아가 취업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화와 연동하는 대안을 자유학기제 지원 정책 과제로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진로탐색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동기를 유인하고, 동시에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기제로 작동하도록 해야 함.

Ⅲ.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 방안(단계적 대안 접근)

■ 필자는 자유학기제의 성공 조건 7개 사안 및 4개의 지원과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시범도입 후 검토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단계적 대안 접근 방안을 제시함.

■ 단계적 대안 접근 골자

□ < 1 단계 : 현 교육체제에서의 진로탐색 교육 강화(2014년까지)>

- 운영 방안
 -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확대하고, 동 시간은 체험 중심으로 진로탐색 교육을 강화함.
 - 나머지 국·영·수 등 일반 교과는 토론식·강의식 수업을 병행하되, 자신의 적성과 능력, 관련 핵심역량 등 진로탐색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교육과정 개발 지원(*서울교육청의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등 권장)
 - 중학교 입학 전 6학년 1학기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통해 1차 진로방향 탐색(해당 검사 및 분석 매뉴얼 보완 개발)

- 동시에 진로탐색 집중 기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용 교육과정 준비와 수업시수 등을 조정하고(교육과정의 난이도 조정 필요), 동시에 중학교 3학년의 고입 전형 시기를 앞당기도록 추진 함.

□ < 2 단계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로탐색 집중 체험 및 실습 강화 (2015년부터)>

• 운영 시기

<초등학교>

- 6학년 2학기 말 일부 중학교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인과의 대화, 진로탐색 캠프, 강연, 잡월드 체험 등 1차 진로방향 탐색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 탐색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

<중학교>

-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체험집중제’로 운영하되, 교과별 관련 토론·실습·체험 중심으로 운영함. 단, 동 시기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의 진로탐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 기간의 실습 및 체험에 대한 학생 개인별 태도 및 보고서 등을 학생이 외국어고교 및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 등으로 진로를 희망할 경우, 해당 고교입시 전형 평가 요소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함(자유학기제와 고교입시의 연계 시스템 구축).
- * 2단계는 1단계의 진로방향 탐색 시기에 대한 1차 진로의 재수정과 진로 관련 전문 직업 세계의 경험을 통한 학생 개인별 고교 유형 선택의 기회 제공, 이수 결과를 학생생활기록부 상의 개인별 특기와 능력 기재 등으로 연계토록 함.

<고등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각각의 학교에서 개인의 진로에 부적합 또는 부적응하여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일정한 심사

를 거쳐 ‘공립형 대안학교’의 진로적성프로그램 개설과 이수과정 참여 기회를 통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단위학교별 진로변경 학생 수용 TO제’(가칭)를 운영하도록 함.

*한국교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확대> 즉,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및 학업포기 학생 대상,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위탁교육 실시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가책임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 중 진로 탐색에 비중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 3 단계 : 진로탐색 전환학년제 도입 등(1-2단계 정책 성공 후 검토)>

- 진로집중탐색 전환학년제 등의 학제 검토, 모든 교과에서 진로-핵심역량-일자리 맞춤형 수업 및 실습·체험 전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모든 기관·단체, 기업 등의 학생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교육 의무화 등

참 고

- 2012. 12. 한국교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교육공약에 대한 현장교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 2013. 1-2. 한국교총 새정부 교육정책 제안서
- 2013. 2. 7. 한국교총, 새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점검 토론회 결과
- 2013. 1. 22 자유학기제 도입 KBS 열린토론(제2930회) 결과
- 2012 -2013. 자유학기제 관련 신문기사 등

자유학기제

- 그 실체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성공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1. 들어가는 말

- 자유학기제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이 학생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기보단 지나친 경쟁과 입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타고난 그런 소질과 끼를 찾아내고 또 그 꿈을 이뤄주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겠습니다."라면서 중학교 한 학기를 시업 없이 진로 탐색에 쏟게 하는 자유학기제의 구체적 로드맵 작성을 지시
- 자유학기제가 어떤 형태로든 실시될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월 15일 교육전문가와 진로진학상담 교사, 학부모단체 대표 등 포커스 그룹 2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자유학기제의 구체적 목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는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함

2.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자유학기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 실린 내용 외에 관련 연구나 논의가 극히 제한적임
- 자유학기제가 다분히 준비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었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제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논의만을 놓고 보면 그것은 진로탐색학기제, 체험활동학기제라고 할

수밖에 없음

- 언론이나 이 주제를 다루는 관계자들은 대체로 자유학기제를 진로교육 시기로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발제문의 경우 자유학기제 목적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적시하지 않아 논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음. 자유학기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과 대안으로 제시한 직업학교 활용부분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며, 외국이 사례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그 목적이 폭넓은 자기 성찰 교육으로 읽힐 수 있음
- 진로교육을 학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설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 하면, 직업체험 교육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중1시험 폐지’ 공약을 ‘중 1진로탐색집중학년제’로 구체화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직업 체험교육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이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진로교육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임
- 자유학기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로 인해 그 실시 시기, 방법, 내용 등에 대해 분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수렴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위해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자유학기제가 의미를 가지려면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는 배움과 협력의 교육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함

3. 자유학기제 정책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시행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정책 내용도 불분명함
- 발제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자유학기제 실시 시기, 대상 등 정책 내용으로서 분명하지 않음.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도만 있을 뿐임. 인수위에서 그 구체적 정책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 공약집에 따르면, 자유학기제의 정책은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하는 것임
- 위 내용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비롯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자치와 체험활동을 위해 교육과정은 편성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소홀했던 **교사의 평가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한편, 교육 정책의 취지와 그 시행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 학교자율화 정책의 경우, 그 목적은 학교 자율화였으나. 그 정책의 실제 추진 방식은 여전히 타율적이고 관료적 방식이었음
- 자유학기제 정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제시되든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Top-down 방식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개혁**”을 통해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 자율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혁신학교**”를 모델로 할 수 있을 것임.

4. 자유학기제와 다른 정책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경쟁적 입시제도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도입될 자유학기제의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유효함
- 서울시교육청이 자유학기제의 원조격인 중1 진로집중학년제를 도입하면서 입시 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교육청이 2월 17일 '2015학년도 고입전형에 위한 중학교 성적산출방법'을 확정하면서 2015학년도부터는 중1 때 내신도 고입전형에 반영하도록 함. 이것은 "중1의 시험부담을 줄여 진로탐색에 집중하도록 하

겠다"며 도입한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임

- 자유학기제를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입시 경쟁이 가열되고 서열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동시에 자유학기제 실시 및 확산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거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의 조정이나 폐지가 필요함
- 특히, 초등에서 폐지하기로 한 일제고사를 중등에까지 확대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함
- 또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입시 경쟁을 강제하는 특목고, 자사고 정책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고입전형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유학기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 이상과 같이, 자유학기제 실시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화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함

5. 나오는 말

- 자유학기제의 취지 자체로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유학기제는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재편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논의과정을 보면, 교육관련 단체와 교장, 교사 등만이 참여할 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는 없음
- 연구나 토론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음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보는 학부모의 생각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5대 교육공약의 하나로 우리 교육계에 등장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학교과정에서 한 학기를 진로탐색 기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지 않으”면서 “시험 위주의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다양한 자율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정철학의 기본인 ‘국민행복’을 교육에서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문용린 교육감도 이미 토론회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유와 체험 기회를 주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그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교육 패러다임을 '지식 넣어주기(teaching)'에서 '스스로 배우기(learning)'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고력 키우기(thinking)'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올 3월 11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학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학부모의 관심 또한 큼니다. 더구나 시험 부담까지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새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신나게 놀던 애기는 세상으로 나오면서 울음을 터트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웃으며 아이를 반깁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열심히 빨아대거나 곁에 누워 잠이라도 들면 엄마 아빠는 온 세상을 얻은 듯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잠깐입니다. 채

돌이 되기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걱정 끝에 이런저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회화나 영어동요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금 더 크면 피아노다 미술이다 태권도다 그야말로 ‘가진 자’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아이는 숨 돌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뛰어야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색과 빛 그리고 모양의 변화에 따르는 신비와 그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손놀림의 재미를 천천히 즐기기보다는 표현 기법과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을 다투며, 음악을 통하여 몸과 마음으로 음악을 즐기고 느끼기보다는 역시 진도를 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아이의 음악적 정서를 키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이 그런대로 살만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라도 들어갈라치면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 지옥이라고 말하기에는 뭣하지만 거의 연옥 수준에 들어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생들의 평균귀가시간이 밤 10시 이후인 경우가 38%이며 그 중 1/3은 자정을 넘기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교생들의 평일 하루 중 텔레비전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 밤 10시 전후일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뭘 더 말하겠습니까. 저녁밥을 온 가족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도 기대하기 어려워 밥상머리교육은 이미 포기했으며,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삶에 회의를 느껴 청소년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나만의 가치에 대하여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이 모든 현상 즉 학습노동의 근본원인이랄까 근본목적을 성취해야 할 시점인 대학입시를 앞에 두고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본인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희망직업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색의 결과가 아닌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과 부모가 기대하는 직업의 일치도가 49.5%에 달한다.” <발제문 8~9쪽>

왜 학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의사, 교사,

법조인, 공무원, 경찰'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만사 제쳐 놓고 시험점수에 매달리며 입시정보에 눈을 밝힙니다. 좋아서 이렇게 시키는 부모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생존자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보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3D업종이라 하여 외국노동자들에게 맡기면서도, 얼마 전에 인천시에서 환경미화 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니 지원자의 80%가 대졸자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전체 국민을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들면 중산층, 50% 이하는 저소득층,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에 75.4%였지만 2000년 71.7%, 2005년 69.2%, 2010년 67.5%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중산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46.4%이며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1%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 75:25에 비하여 우리는 45:55이며, 임금격차는 10:8에 비하여 우리는 10:4입니다. 2월 14일 발표된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인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 조사에서 '없다'거나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51.4%였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흔들리는 직업 안정성 즉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중산층이 스스로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물론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은 고소득층조차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지도자급이라 불리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주요 인사들이나 대기업 업주들조차 불법행위를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을. 혹은 일류대학엘 들어가도 혹은 멋진 배우자를 만나도 혹은 아무리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아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을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 그것도 누려본 사람만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간 후 혹은 결혼을 한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어야 앞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식경제사회에서는 행복감을 느껴야 창의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 힘은 더욱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물론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기꺼이 받아드릴 수 있는 ‘그’ 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 입시제도와 교육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중, 외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입학사정관제, 독서이력제, 자기주도학습, 창의재량활동, 수행평가, 에듀팟..... 수많은 경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많은 시범학교와 연구학교의 성과가 있었으며 그 덕분인지 OECD PISA 결과에서 우리는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고등교육경쟁력에서는 중위권에 간신히 들고 있는 정도입니다. 암기위주 교육에 매달리다 보니 지식경제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에서는 오히려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잠시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여유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자신의 꿈을 위해 하는 공부는 정말 효율적이고 재미도 있게 됩니다. 진로를 생각하거나 정하지 못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점수에 매달리다 보면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학과 중심이 아니라 SKY-in서울-지갑대 식 서열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심지어는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 적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체제 하에서 진학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

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본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계획이나 제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 꿈을 접고 벌써 치열한 현실에 빠져든 아이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 혹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를 중심으로 상대나 친구를 판단하는 아이들과 배정된 많은 예산과 그 활용을 위하여 이런저런 상품 나열식 진로교육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감도 생각하여 광의의 진로교육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찾아 소득이나 명예에 얽매지 않고 그 일 자체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일 따로, 재미 따로’ 하는 분열된 삶이 아니라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끝없는 발전을 이뤄감으로써 자기 자녀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이 엄중한 진학체제 아래서 혹은 특혜를 받거나 혹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불안감을 교사 학생 학부모 그 누구도 느끼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자유학기제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문제는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시행착오와 불만이 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따라서 ‘공립형 진로 탐색 대안학교 시범실시’는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더 시급한 교육의 기본문제,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수라든가 학교시설 개선, 학교 비정규직 문제 등을 푸는 데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로탐색 휴학제’ 역시 그렇습니다. 일부 부유층에서는 이미 비슷한 과정을 아무 심사나 보고서 제출도 하지 않고 여유 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휴학하지 않은 같은 학년 친구들과 그대로 함께 이어갈 수도 있게 해준다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하여 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기주도학습이라는 이상적 계획을 펼쳤더니 그것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과 사교육시장이 번창했습니다. 대강 시작하는 자유학기제 또한 새로운 사교육시장의 문을 열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말씀하신대로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은 그야말로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일입니다. 교과과정 특히 국영수 학습범위와 깊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토론과 나름의 종합 정리를 거쳐 새로운 마당을 펼쳐 보면서 음미체 활동과 더불어 삶의 경험을 늘려나감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감성과 만족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교사연수와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권과 학교 자율권 부여가 필요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직 교사분 중에도 앞에서 말한 입시성적에 따라 진학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그 선생님이 그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저 선생님께서 말과 글로 가르쳐 주시고 시험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일상생활 모습과 걸음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분위기를 통하여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평가하며 생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교육결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세계의 변화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부모가 인정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교에도 자율권을 줌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KEDI의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상덕)’의 일환으로 수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FGI)에 참가한 전문가 그룹, 일반교사그룹, 진로진학상담교사그룹, 교장/장학관 그룹,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대표 그룹 총 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1.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행복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설정

설문조사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70.8%가 광의의 진로교육(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주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육)이 적합하다고 하였고, 반면에 응답자의 8.3%만이 협의의 진로교육(직업체험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함. 나머지 20.8%는 광의의 진로교육과 협의의 진로교육의 중간 정도가 적합하다고 응답함.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제안 취지를 살려 목적을 ‘행복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시 시기, 내용, 방법이 고려되어야 함. 특히 자유학기제에 대한 계속되는 논란과 우려가 대개 중학교 단계의 진로탐색을 협의의 진로교육 또는 직업체험활동 위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자유학기제의 목적이 지식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사고력을 키우는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이해될 때 학부모들의 우려나

직업체험시설 미비 논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자유학기제가 광의의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시 시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적절하며, 1학년 1학기 또한 준비 시기로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

설문조사 결과, 광의의 진로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1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높고, 이어 ‘2학년 1학기’(27.3%), ‘2학년 2학기’(18.2%), ‘1학년 1학기’(13.6%)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협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실행할 경우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학년 1학기’(17.6%)와 ‘3학년 1학기’(11.8%) 순으로 나타남.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중학교 2학년만 되어도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1학년 2학기가 광의의 진로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됨. 그리고 학교 교육이 학년제로 이루어짐을 고려해 1학년 1학기 또한 중학교에 적응하고 진로탐색을 준비하는 학기로 설정해 광의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일부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2학기의 자유학기제가 보다 알차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자유학기제의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과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강화(지역사회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활용)’,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 ‘일반교사의 연수·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 능력 강화’, ‘학교생활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지필고사 및 수행평가 실시 조항)’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요구됨. 예를

들면, 학교 차원, 시도교육청 차원, 교육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각각의 과제들을 설정하고 세 주체가 파트너십을 형성해 과제들이 잘 연계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행에 필요한 과제들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4. 자유학기제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필요

자유학기제를 통해 수업과 평가를 바꾸더라도 이어진 학기에 다시 본래의 주입식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임. 따라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전체의 수업과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신해 형성평가를 적극 활용하며 성과를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제도에 대한 일관된 혁신 전략이 요구됨. 따라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학교 전 과정동안 강의식 교육 대신에 토론·실습·탐구 활동이 가능한 프로젝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이 요청됨.

또한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인성, 사회성,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고, 고교와 대학이 암기 지식보다는 창의, 협력, 공감적 역량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교육한다면,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나 학력 저하 우려는 보다 쉽게 불식될 수 있을 것임.

토론5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자유학기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제기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에 동의함.

-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한 진로 탐색을 통하여 진로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학습동기를 점진함으로 ‘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됨.
- 이를 통하여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선화된 학생들의 진로경로(career path)를 개인별 적성과 흥미, 그리고 진로비전에 맞추어 다양하고 복선화된 학생들의 창의적 진로경로를 지원하는 숨은 기대 효과가 있음.
- 또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과 협동하며 일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의사소통능력 등의 인성의 함양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현재 「진로와 직업」 교과와 비교과 창체활동(진로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으로부터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집중화된 형태의 진로교육의 전환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학생의 진로중심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전반적인 공교육 전반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함.
- 사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은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인간상과 관련하여 제시되며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진로교육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목표로 제시 되어 학교 진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문제는 진로교육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실천력에 있음. 하지만, 2011년 중앙단위 교과부에 ‘진로교육과’가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2011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관점의 강조임)

○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쉽 없이 ‘공부’만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공부 잘하는 약 30%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과정을 수정하여 나머지 70% 학생들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교사들에게는 교사로서의 참 소명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이바지한다는 관점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발제자가 “.....우리 청소년의 과도한 입시경쟁에 짓눌려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선해 보자는 데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개선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와 관련하여 3가지 질문과 함께 제시한 대답들을 요약하면 우리 교육 현실과 교육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여 자유학기제가 튼튼한 뿌리내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금씩 그리고 분명한 정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함.

- 입시경쟁 완화와 교육과정 축소 및 난이도 조정이 더 본질적이고 시급한 것이 아닌가 ? -> 자유학기제 시행과 튼튼한 뿌리내림을 통하여 학생들은 일방적인 ‘특급열차’식의 진로선택이 아닌 창의롭고 충분히 다양한 자기만의 진로경로를 선택하고 나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현재의 입시경쟁 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작단계에서는 학교·학부모·교사가 희망하는 학교단위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나 점차 정착단계에서는 개인적 희망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개인 단위의 자유학기 시행을 위한 지원 인프라의 튼튼함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전환학년제 고등학교 시범실시 : 이 경우, 전반적인 학제개편이 전제되고 더 나아가 교육과정 전반이 학생의 개인 진로중심 교육과정으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경우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음. 자유학기제도의 안정단계에 이를 경우, 가능할 수 있음.
- 공립형 진로탐색 대안학교 시범 실시 :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때 일반학생 대상이기 보다는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비전 수립이 우선되어야 하는 특화된 계층중심의 대안학교가 대상이 되기를 바랍. 예를 들어 비진학미취업학생, 학업중단청소년, 장애학생 등의 일반학생에 비하여 인생의 흔들림과 혼란을 경험한 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대안학교의 역할을 기대할 수있을 것임.
- 진로탐색 휴학제 실시 :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악용되거나 왜곡될 소지를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인력, 프로그램,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성과에 대한 검증제도, 지원 센터 등)가 구축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임.
실제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군대전·후와 취업경쟁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되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아르바이트, 인턴, 언어연수 등의 스펙쌓는 기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좀 더 자신의 진로 성향을 성찰하고 경험을 쌓는 자기 주도적 학습 기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제안이라 판단함.

- 결론적으로 자유학기제는 당장의 우리 교육현실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나 30여년 간의 시행착오로 아일랜드에 정착된 전환학년제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자유학기제는 우리 교육환경에 새로운 틀을 가져다주는 불쏘시개가 되어 30여년 후에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다양한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이 수립한 진로비전을 위하여 진학과 취업을 선택하는 창의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이 존재하는’ 시대적 담론을 형성하는 좋은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함.

- 모든 지원 인프라의 확립 후 시작하기 보다는 점증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제도를 보급·확산하는 방향으로 가되, 시작단계에서는 「①교육과정안에서 비교과 창체활동의 시수와 내용을 진로탐색에 집중, ②운영교사 매뉴얼 개발, ③진로탐색 학습처 발굴, ④ 학습내용의 평가 방식 개선, ⑤ 교사 및 교장 연수를 통한 공감대 형성, ⑥운영의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두되 안정적 단계에서는 「①개인의 진로 중심 교과선택 자율성 강화, ②지역의 다양한 진로탐색 사회적기업 육성, ③학교 내·밖의 진로탐색 지원 인력 확대, ④중·고등학교단계에서의 진로탐색 휴학제 실시, ⑤모든 진로탐색 경험이 특정 대학의 학과 입학에 반영되는 입시제도 개선」 등으로 연결되어 성장·진화되기를 바램.

- **발행인** : 김진우, 임종화
- **편집인** : 정병오
- **편 집** : 김고운
- **발행처** : 좋은교사운동 문서출판부

* 본 자료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는 복제가 허용되지만 영리를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본 파일은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 \(www.goodteacher.org\)](http://www.goodteacher.org)에 있습니다.